



옴저버빌리티 현황 - 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한국 및 일본의 옴저버빌리티 도입 현황과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분석 및 인사이트

개요

2024 오피버빌리티 전망 - 아시아 태평양 보고서는 오피버빌리티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성장 및 침체 영역을 파악하며, 외부의 상황이 오피버빌리티의 도입과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오피버빌리티 업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 조사로 **9개국 기술 담당자 800여 명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운영 중단이 훨씬 더 자주 발생해, 53%의 조직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영 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유럽 31%, 미주 26%).

이렇게 수치가 높은 이유는 이 지역에서는 5개 이상의 툴을 사용(55%)하는 경우가 많아(유럽 43%, 미주 35%), 데이터와 팀 전반에서 정보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는 데이터 사일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I 기술의 도입은 오피버빌리티의 필요성이 높아진 주된 이유(36%)였습니다. 혁신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오피버빌리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유럽에 비해 오피버빌리티를 배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AI 기반 오피버빌리티를 배포한 조직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비즈니스 가치와 투자 수익률(ROI)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응답자들은 오피버빌리티의 주요 이점으로 비즈니스 및/또는 수익 성장(31%)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들은 오피버빌리티에 투자하여 많은 가치를 얻었습니다. 유럽은 연평균 705만 달러, 미주는 540만 달러인데 비해 이 지역은 1008만 달러의 가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800



주요 결과

운영 중단으로 인한 평균 시간당 비용은 230만 달러입니다.

영향력이 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연간 평균 다운타임은 109.8시간(약 4.5일)이며, 시간당 비용은 최대 23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유럽과 미주 지역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자주 심각한 운영 중단이 발생했으며, 53%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영 중단이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용량 제한과 예상치 못한 트래픽 급증이 운영 중단 주된 원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응답자들은 용량 제한(미주 21%, 유럽 15%)과 예상치 못한 트래픽 급증(미주 18%, 유럽 16%)을 운영 중단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32%는 내년에 툴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55%)의 조직들이 5개 이상의 업저버빌리티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업저버빌리티에 대한 지출에서 더 많은 가치를 얻기 위해 툴을 통합할 계획이라는 기업 수(32%)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습니다(미주 50%, 유럽 43%).

조직들은 AI 기술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업저버빌리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도입이 업저버빌리티에 대한 필요성을 높인 가장 큰 이유(36%)였으며, 그 다음은 보안, 거버넌스, 위험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중점 강화(34%), 전사적 자원 관리(ERP) 및 고객 관계 관리(CRM) 같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워크플로우 통합(34%)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하이라이트

각 국가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동남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응답자들은 풀스택 업저버빌리티를 확보하는 데 주된 장애물로 복잡한 기술 스택을 꼽았습니다. 툴 통합과 데이터 통합은 여전히 우선순위에 있었고, 단일 업저버빌리티 툴로 통합하고 있는 기업 수는 작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무분별한 툴 확산과 데이터 사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IOps(IT 운영을 위한 인공 지능)의 배포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툴 통합, 데이터 통합 및 AIOps 기능 배포를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해 두었습니다.

인도

인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운영 중단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많은 툴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점차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일본은 다른 국가들보다 운영 중단 비용은 가장 적었지만 데이터 통합은 여전히 어려운 도전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 부족이 풀스택 업저버빌리티 역량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직원 교육이 다급한 사안입니다.

한국

한국에서는 운영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평균감지시간(MTTD)과 평균해결시간(MTTR)이 모든 국가들 중 가장 길었습니다. 운영 중단으로 야기되는 비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지만, 업저버빌리티에서 상당한 비즈니스 가치를 얻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동남 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툴 통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업저버빌리티를 비즈니스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았으며, 머신 러닝(ML) 모델 모니터링을 많이 배포했습니다. AI 기술 도입(38%), 비즈니스 앱 통합(34%),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마이그레이션(34%)이 업저버빌리티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동인이었습니다.

툴 통합 및 데이터 통합이 최우선 과제

이 지역에서는 거의 절반(49%) 기업들이 5개 이상의 업저버빌리티 툴을 사용했습니다. 전체 응답은 45%였습니다. 특히 14%의 응답자는 하나의 툴만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23년의 3%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63%는 단일 통합 플랫폼을 선호했으며, 다수의 포인트 솔루션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8% 뿐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모니터링 툴과 분산된 데이터를 풀스택 업저버빌리티의 주된 장애물로 꼽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지역은 이와 같은 답을 한 응답자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28%).

또한 데이터가 격리된 경우(30%) 보다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통합된 경우(38%)가 더 많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와 물류 데이터를 제외하고, 이 지역은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 유형을 텔레메트리 데이터와 통합한 경우가 전체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 데이터(전체 43% 대비 50%), 재고 데이터(전체 36% 대비 46%), 고객 데이터(전체 41% 대비 44%)는 통합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머신 러닝 모델 모니터링의 높은 배포율과 풀스택 업저버빌리티 증가 추세

특히 인도네시아 응답자의 40%는 보고서의 정의에 따른 풀업저버빌리티를 확보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동남 아시아 전체 20%). 10%만 풀스택 업저버빌리티를 확보했다는 싱가포르와는 비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기업의 65%는 10개 이상의 업저버빌리티 기능을 배포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싱가포르 응답자들은 풀스택 업저버빌리티를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로 복잡한 기술 스택(60%)과 변화에 대한 저항(50%)을 꼽았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보면, 복잡한 기술 스택(36%)과 예산 부족(30%)이 풀스택 업저버빌리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배포된 기능은 보안 모니터링(55%)이었고, 그 다음은 인프라 모니터링(54%)이었습니다. 머신 러닝(ML) 모델 모니터링이 가장 적게 배포된 기능(21%)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향후 1-3년 내에 ML 모델 모니터링(73%)과 분산 추적(69%)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78%

의 동남 아시아 조직들에서는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운영 중단으로 인해 시간당 최소 1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빈번한 운영 중단과 높은 비용

이 지역에서는 약 3분의 1(33%)의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영 중단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경험했으며(태국의 빈도가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가 가장 낮음), 75%는 이를 감지하는 데 최소 30분이, 72%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소 30분이 걸렸습니다. 대다수(87%) 응답자들은 비즈니스에 핵심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이 중단되면 시간당 최소 5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으며, 78%는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중단으로 인한 평균 비용은 시간당 250만 달러로, 전체 응답자 평균인 190만 달러보다 32% 높았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응답자 80%는 업저버빌리티를 도입한 이후 MTTR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대답을 한 인도네시아 응답자는 56%였습니다.

이 지역 조직의 27%는 여러 모니터링 툴을 통해 중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22%는 수동 확인, 테스트 또는 불만 제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단일 업저버빌리티 플랫폼으로 알게 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율은 싱가포르가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업저버빌리티의 높은 ROI 및 비즈니스 가치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 응답자의 80%는 업저버빌리티에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평균은 270만 달러(전체 195만 달러)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평균 연간 ROI는 302%로, 동남 아시아 지역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태국은 연평균 300%의 ROI를, 싱가포르는 258%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87%의 응답자는 자신의 조직이 업저버빌리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간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얻는다고 답했습니다. 5분의 2 이상(42%)은 업저버빌리티가 보안 위험을 줄여주었다고 말했으며, 37%는 시스템 업타임과 안정성을 향상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남 아시아 지역 응답자들은 다른 국가의 응답자들보다 업저버빌리티를 핵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전체 50% 대비 62%).

호주 및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업저버빌리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ERP 및 CRM 같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워크플로우로 통합(31%), 보안, 거버넌스, 위험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중점 강화(30%), 오픈소스 기술 도입(29%),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개발(28%) 순이었습니다.

야심 찬 업저버빌리티 도입 계획과 이를 추진하는 AIOps

뉴질랜드의 응답자 중 18%, 호주의 응답자 중 17%만이 (보고서의 정의에 따른) 풀스택 업저버빌리티를 확보했습니다.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3분의 1 이상(38%)이, 호주의 경우는 17%만이 10개 이상의 기능을 배포했습니다.

거의 절반(46%)이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구현했으며, 보안 모니터링(45%), 인프라 모니터링(43%), 브라우저 모니터링(43%)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AIOps가 가장 적게 구축된 기능으로 17%에 불과했습니다. 내년에는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해, 53%는 AIOps를, 44%는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을, 43%는 대시보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1-3년 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19개의 업저버빌리티 기능들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높은 비용을 야기하는 잦은 운영 중단과 이에 도움을 주는 업저버빌리티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영 중단은 상당히 자주 발생해, 56%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전체 38%), 11%는 최소 하루에 한 번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64%의 조직이 중단을 감지하는 데 최소 30분이 걸렸고, 74%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30분 이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다운타임은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86%가 핵심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중단으로 인해 시간당 500,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79%는 시간당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영 중단으로 인한 평균 비용은 시간당 220만 달러로, 전체 응답자의 시간당 평균 190만 달러보다 16% 높았습니다. 그러나 업저버빌리티는 이러한 비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응답자의 65%는 업저버빌리티를 도입한 후 MTTR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답했고, 29%는 25% 이상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절반(48%)은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 데브옵스 연구 및 평가(DORA)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

의 호주 및 뉴질랜드 조직들은 다수의 포인트 솔루션이 아니라 단일 통합 업저버빌리티 플랫폼을 선호합니다.

격리된 데이터와 툴의 무분별한 확산

호주와 뉴질랜드의 응답자들은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통합(32%)된 경우보다 격리된 경우(40%)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5가지 이상의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 유형을 텔레메트리 데이터에 통합한 경우가 적었습니다(전체 35% 대비 24%).

절반 이상(56%)이 옵저버빌리티를 위해 5개 이상의 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일 툴을 사용한다는 대답은 작년에는 6%였지만 올해는 1%로 줄어들었습니다. 63%는 다수의 포인트 솔루션(20%)이 아니라 단일 통합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을 선호했습니다. 약 3분의 1(31%)의 조직들은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지출에서 최대의 가치를 얻기 위해 내년에 툴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39%는 사용하는 모니터링 툴이 너무 많은 것과 데이터 격리되어 있는 것이 풀스택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하는 데 주요 장애물이라고 답했습니다.

IT 의사결정권자(ITDM)들이 본 옵저버빌리티의 비즈니스 가치

호주와 뉴질랜드의 IT 의사 결정권자 중 거의 절반(49%)은 단일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저버빌리티 역량 덕분에 일상 업무가 수월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옵저버빌리티가 기술(42%) 및 비즈니스(38%) 핵심 성과 지표(KPI)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옵저버빌리티가 어떻게 일상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무자들은 생산성 향상(38%), 복잡하고 분산된 기술 스택 관리에서 추측 작업 감소(36%), 시간 분배 향상(35%)을 꼽았습니다.

대부분(89%)은 자신의 조직이 옵저버빌리티 투자로부터 연간 총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얻었다는 응답자도 79%나 되었습니다. 호주의 조직들은 옵저버빌리티 투자에서 3.9배의 수익을 실현했고, 뉴질랜드 조직은 4배의 ROI를 실현했습니다.

인도



인도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업저버빌리티를 도입한 후 상당한 가치를 얻었지만 툴 단편화, 낮은 업타임, 높은 운영 중단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I, 보안 및 비즈니스 앱으로 인해 업저버빌리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업저버빌리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AI 기술 도입(3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보안, 거버넌스, 위험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중점 강화(37%), 워크플로우로 ERP 및 CRM 같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통합(36%)이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지 않은 추세는 서버리스 컴퓨팅 도입(24%)과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플로우 컨테이너화(25%)였습니다. 많은 응답자들(60%)이 업저버빌리티를 인시던트 대응이나 만일을 위한 보험(14%)이 아니라 핵심적인 비즈니스 목표로 보고 있었습니다.

툴의 무분별한 확산과 통합 노력

절반 이상(57%)이 업저버빌리티를 위해 5개 이상의 툴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0개 이상을 사용하는 조직도 3%나 되었습니다. 툴을 하나만 사용하는 조직은 5%에 불과해, 인도는 모든 국가 중 단일 통합 플랫폼에 대한 선호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전체 53% 대비 43%). 그러나 40%의 응답자가 너무 많은 모니터링 툴과 격리된 데이터로 인해 풀스택 업저버빌리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3분의 1 이상(35%)은 업저버빌리티에 대한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툴들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높은 다운타임 및 운영 중단 비용

인도에서는 거의 3분의 2(65%)에 해당하는 조직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영 중단을 경험했으며, 31%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감지와 대응이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68%)이 운영 중단을 감지하는 데 30분 이상 걸린다고 답했으며, 32%는 60분 이상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71%는 운영 중단을 해결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67%는 업저버빌리티를 도입한 이후 MTTR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절반(44%)의 조직들이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 MTTx 지표를 추적 및 보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84%는 핵심적인 비즈니스 앱의 운영이 중단되어 시간당 50만 달러 이상의 다운타임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으며, 77%는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영 중단으로 인한 평균 시간당 비용은 200만 달러로, 전체 응답자 평균인 190만 달러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57%

의 인도 조직들은 업저버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5가지 이상의 툴을 사용합니다.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 오피버빌리티

거의 4분의 1(22%)의 조직들이 보고서의 정의에 따른 풀스택 오피버빌리티를 확보했습니다. 전체 평균인 25%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외에 38%의 조직은 10개 이상의 오피버빌리티 기능을 배포했습니다. 가장 많이 배포된 기능은 AI 모니터링(57%)이었고, 그 다음은 대시보드(53%)와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50%) 순이었습니다. 신세틱 모니터링이 가장 적게 배포된 기능(29%)이었고 그 다음은 쿠버네티스 모니터링(30%)과 AIOps 모니터링(30%)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65%의 조직들은 향후 1-3년 내에 AIOps 기능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4분의 3 이상(77%)의 조직들이 오피버빌리티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평균 연간 지출액은 243만 달러입니다. 인도의 응답자 대부분(85%)은 이러한 투자에서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얻고 있다고 답했으며, 70%는 5백만 달러 이상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연간 ROI는 294%, 즉 3.9배였습니다. 약 3분의 1(36%)의 응답자는 오피버빌리티가 비즈니스 및/또는 수익 성장을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오피버빌리티의 다른 주요 이점으로는 시스템 업타임 및 안정성 향상(42%), 운영 효율성 향상(42%), 개발자 생산성 향상(40%) 등을 꼽았습니다.

일본



일본에서 업저버빌리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AI 기술의 도입(46%)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안, 거버넌스, 위험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중점 강화(38%), 비용 관리(34%) 순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 중단 비용과 업저버빌리티로 향상되는 MTTR

일본에서는 3분의 1(33%)의 조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영 중단을 경험했습니다(전체 38%). 61%는 운영 중단을 감지하는 데 최소 30분이 걸리고, 72%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30분 이상이 걸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소 60분이 걸린다는 대답도 48%나 되었습니다. 절반 이상(56%)은 업저버빌리티를 도입한 이후 MTTR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밝혔으며, 실무자의 46%는 업저버빌리티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51%)은 시스템 업타임 및 안정성 향상을 업저버빌리티의 주요 이점으로 들었습니다.

거의 3분의 2(66%)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핵심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중단으로 인해 시간당 100만 달러 이상의 다운타임 비용이 야기된다고 답했지만,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흥미롭게도,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영 중단으로 인한 일본의 평균 운영 중단 비용은 시간당 280만 달러로,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중단 비용이 높은 조직의 경우 시간당 1백만 달러가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비즈니스 가치와 ROI를 제공하는 업저버빌리티

대부분의 조직(73%)은 업저버빌리티에 매년 1백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업저버빌리티에 대한 일본의 연간 평균 지출액은 218만 달러로 모든 국가 평균인 195만 달러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조직(84%)이 업저버빌리티에 대한 투자로부터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얻었고, 68%는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얻었습니다. 일본의 연간 평균 ROI는 313%(4.1배)로 모든 국가 평균인 295%(4배)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또한 58%는 업저버빌리티가 조직의 핵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답했습니다.

22%

의 일본 조직들이
풀스택 업저버빌리티를
확보했습니다.

데이터 통합과 툴 통합

일본에서는 거의 절반(48%)의 조직들이 업저버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5개 이상의 툴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일 툴을 사용하는 조직은 단 2%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59%)이 업저버빌리티를 통해 중단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중 43%는 여러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거의 절반(46%)의 응답자들은 업저버빌리티를 위해 단일 통합 플랫폼을 선호했으며 36%는 다수의 포인트 솔루션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격리되어 있는 것(26%)이 아니라 보다 통합(44%)되어 있었습니다. 4분의 1(25%)의 조직이 5개 이상의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 유형을 텔레메트리 데이터에 통합했지만, 일본은 각 유형이 평균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생산 데이터의 17%(전체 38%)와 물류 데이터의 19%(전체 34%)만 통합되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업저버빌리티 배포와 교육

보고서의 정의에 따른 풀스택 업저버빌리티를 확보한 조직은 5분의 1 이상(22%)이었습니다. 5분의 3(62%)은 5개 이상의 기능을 배포했고, 약 4분의 1(23%)은 10개 이상의 기능을 배포했습니다. 절반 가량은 로그 관리(53%)와 네트워크 모니터링(50%)을, 45%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IOps(18%)와 머신 러닝 모델 모니터링(20%)이 일본에서 가장 적게 배포된 기능이지만, 향후 원대한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55%)은 AIOps를 배포할 계획이며, 61%는 향후 1-3년 내에 머신 러닝 모델 모니터링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국



한국에서 업저버빌리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워크플로우에 ERP 및 CRM 같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합(35%)하기 위함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개발(34%), 보안, 거버넌스, 위험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중점 강화(32%), AI 기술 도입(30%) 등도 두드러진 추세입니다.

높은 다운타임과 비용

한국 응답자 중 61%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영 중단을 경험했으며, 83%는 운영 중단을 감지하는 데 최소 30분이 걸렸다고 답했고, 85%는 운영 중단을 해결하는 데 30분 이상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모두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대다수(92%)의 응답자들이 핵심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 중단되면 시간당 최소 100만 달러의 다운타임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한국의 평균 운영 중단 비용은 시간당 260만 달러로, 모든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체 응답 평균인 190만 달러보다 37%나 더 높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엔지니어링 팀은 업무 시간 중 절반 이상(57%)을 운영 중단 해결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상당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는 업저버빌리티

한국의 거의 모든 응답자(98%)가 업저버빌리티에 대한 투자로부터 연간 최소 1백만 달러의 가치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0%는 1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얻는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평균 연간 ROI는 298%(4배)입니다. 트래픽 급증 대응 역량(39%)과 비즈니스 및/또는 수익 성장(37%)이 업저버빌리티의 이점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거의 절반(48%)의 응답자는 업저버빌리티가 조직의 핵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답했습니다.

83%

의 한국 조직들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단을 감지하는 데 30분 이상 걸립니다(모든 국가 중 가장 높음).

옹저버빌리티 배포 비율은 낮지만 확장 계획 진행 중

보고서의 정의에 따른 풀스택 옹저버빌리티를 확보한 기업은 6%에 불과했으며, 10개 이상의 옹저버빌리티 기능을 사용하는 조직도 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가장 많이 배포된 기능은 AI 모니터링(44%)이었고, 그 다음은 보안 모니터링(31%), 로그 관리(30%), 오류 추적(30%)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향후 3년 동안 모바일 모니터링(73%), 분산 추적(70%), 서버리스 모니터링(69%), 비즈니스 옹저버빌리티(68%) 등을 배포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툴 확산과 낮은 데이터 통합 수준

한국의 응답자들은 단일 통합 옹저버빌리티 플랫폼(46%)을 다수의 포인트 솔루션(39%)보다 선호하지만, 옹저버빌리티 투자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얻기 위해 내년에 툴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 뿐이었습니다. 모든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63%는 옹저버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5개 이상의 툴을 사용하고 있으며, 22%는 8개 이상을 사용합니다. 단일 툴을 사용한다는 대답은 6%였습니다. 특히, 약 3분의 1(33%)은 지나치게 많은 수의 툴로 인해 풀스택 옹저버빌리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분별한 툴 확산과 관련된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 42%는 데이터가 격리된 편이라고 대답했고, 45%는 데이터가 통합된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5가지 이상의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 유형이 텔레메트리 데이터에 통합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로, 10%의 응답자가 같은 대답을 한 싱가포르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요약

2024 옹저버빌리티 현황 - 아시아 태평양 보고서에 의하면, 데이터, 팀 및 톨 단편화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옹저버빌리티는 상당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직들은 미래에 투자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보고서 소개

이 보고서의 모든 데이터는 2024 옹저버빌리티 전망 보고서 출간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현장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도출한 것입니다.

IT 시장 조사 기관인 ETR은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 응답자를 선정했습니다. ETR은 할당량 샘플링이라는 비확률 샘플링을 수행하여 거주국과 조직 내 역할 유형(실무자 및 IT 의사결정권자)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샘플 사이즈를 계산했습니다. 지리적 대표성 할당은 주요 16개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업계별로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이 보고서의 일부 분석에서는 $n < 10$ 인 하위 샘플을 제외시켰습니다. 모든 인용문은 ETR이 옹저버빌리티를 사용하는 IT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모든 달러 금액은 미화(USD) 기준입니다.



ETR 소개

ETR은 IT 시장 조사 기관으로 타깃화된 IT 의사결정권자(ITDM) 커뮤니티에서 확보한 독점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산 지출 의도와 업계 동향에 대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2010년부터 ETR은 기업 연구에서 불완전하거나 편향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데이터로 형성되는 의견의 필요성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ETR의 ITDM 커뮤니티 업계 최고의 고객/평가자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에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독점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통해 기관 투자자, 기술 기업 및 ITDM들은 확장되고 있는 시장에서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기술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뉴렐릭 소개

뉴렐릭의 지능형 업저버빌리티 플랫폼은 기업이 중단 없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뉴렐릭은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통합하고 상호 연관시켜 전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뉴렐릭은 적시에 올바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기업이 문제 사후 대응을 예측과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하여 가치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didas Runtastic, American Red Cross, Domino's, GoTo Group, Ryanair, Topgolf, Relic Hill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뉴렐릭을 사용해 혁신을 추진하고 안정성을 높이며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newrelic.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렐릭 플랫폼 상세 정보 보기](#)

